

이젠 올림픽무대서 '금빛연기'

스포츠 포커스

아시안게임 2연속 2관왕 마장마술 최 준 상 선수

지난 5일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이 열린 도하 승마클럽 마장마술 경기장. 최준상(28·삼성전자승마단)은 기쁜 숨을 물어쉬는 애마 '댄싱 보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아시안게임 2관왕의 기쁨을 나눴다.

최준상은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수 없이 되내었다. 4년 6개월동안 동거동락하며 지내온 댄싱보이에게 마지막 국제대회인 만큼 명예로운 은퇴를 시켜 줄 수 있게 돼 '기쁨이 두배'

광주교대부설초등 3학년때 승마와 인연

였다. 14살인 댄싱보이로서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4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 않고 함께 했던 최준상의 열정에 최선의 보답을 해준 댄싱보이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도하에 적응을 하지 못한 댄싱보이를 포기하고 다른 말을 타볼까 했었던 미안함마저도 들었다.

최준상은 이날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71.550%의 점수를 얻어 1.2차전 예선 및 결선 합계 68.602%로 일본의 노게 유카코를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단체전을 포함해 2관왕에 오른 것이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었던 최준상은 2개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2개 대회 연속 2관왕이라는 영광과 기쁨도 좋았지만 최준상은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 개인전 프리스타일에서는 경기 후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상에 우뚝 서게 됐다.

최준상이 승마와 인연을 맺은 것은 광주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3학년 때. 이모를 따라 광주 승마협회에 간 것이 계기



최준상선수(왼쪽)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가 돼 말을 타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하게 된 최준상은 광주 무진중학교 2학년 때 영국 유명 스포츠 학교인 '밀필드'에서 본격적인 승마 수업을 받는다.

유학시절 국내 대회에 간간이 참여하면서 얼굴을 알렸던 최준상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할 때까지 해도 거칠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최준상은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최준상은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했었고, 말 탄 것을 후회도 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낭양암로에 회장님의 배려로 다시 말을 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애마 '댄싱보이' 은퇴경기서 금 감동두배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는 격언처럼 최준상은 그 해(2002년) 아시안게임 출전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대표 선수 1명이 실격당해 우여곡절 끝에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다.

그리고 최준상은 보란듯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당당히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준상은 "이번 도하 아시안게임은 부산 아시안게임과 달리 엄청난 중압감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였다"며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곧바로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게 될 현실에 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준상은 이번 대회가 열리기 전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독일에서 전지훈련 중인 애마 '댄싱보이'를 데려오지 않고 다른 선수의 말을 빌려 탔다. 결과는 4등이었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전국체전을 포기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었다.

광주시체육회에서도 최준상의 결정을 따랐다. 최준상의 평소 인간됨과 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최준상은 지난 83회~86회 전국체전에서 승마 미장마술 4연속의 위엄을 달성. 광주시체육회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승마가 전국체전 최고의 배점종목인 만큼 늘 타시도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으나 흔들리지 않는 '애향심'을 보여줘 체육관계자들 사이에서



는 '의리파'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상의 꿈은 2년 뒤 올림픽 출전이다. 올림픽 출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오세아니아 주, 아시아, 아랍, 서아시아권에 단 1장 주어지는 마장마술 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애마인 댄싱보이가 곧 은퇴를 앞

체전 광주대표...애향심 지키는 의리파

두고 있어 5~6살 된 어린 말을 사와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확실한 스포츠에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최준상은 여유자적하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은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승마는 말과의 교감을 위해 단 하루도 말 옆을 떠날 수 없다. 아시안게임 2개 대회 연속 2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잊고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다시 고삐를 죄는 최준상의 손길이 바쁘다.

/최재호기자 lion@

사진 /최현배기자 choi@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매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 (062) 222-8111

새벽 항구
나주시 미창동 5일시장 뒷편
각종화전문, 단체모임행영
성전, 만남, 세미나, 허브나물!!
(061) 333-8888

소 품
농성2동 호남주택단지
수입의류, 보석, 액세서리 전문점
대표 박 금 희
(061) 381-8422

증 립 원
증평군 월드컵경기장 서문문앞
장아구이, 모리훈제, 흔닭
새로운 증원 서비스 모색합니다
(062) 681-9993

한 우 촌
용인동 용봉시장 근처
한우전문점
대표 김 경 화
(062) 528-0107

완 도 황
주례동 1270-14번지
자연산전문점
자연산이 아련한 빛입니다
(062) 673-8096

푸른기업해지
기획동 농산물장터 무기장해지센터
냉동·냉장·온도제어장치
대표 정 경 채
(062) 430-9888

가 매 항 횟집
성인동 694번지 첨단동상가 1층
각종 해산물 전문점
대표 신 등 화
(062) 973-8690-1

정도헬스클럽
학동 정도프리미엄
헬스 클럽 수시모집
대표 박 경 주
(062) 224-1012

젤존데 야지
임곡동 우체국부근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점
대표 송 수 영
(062) 576-9255

해 질 무 럭
영광을 살피리 암전미래국 국립관련
마운틴클럽수련관은 영광에서 재개장했습니다
대표 양 경 미
(061) 353-3885

황성단한약방
월산동 호남주택단지
건강상담
대표 양 구 섭
(062) 386-2536

기족사랑 이웃사람
증평군 풍암고등학교 정문 앞
제반화장품 약국·화장품·생활必需품
대표 김 정 속
(062) 682-8253

산 사 랑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동신동 품질전문점
대표 한 길 준
(062) 366-1111

침진동해장국 투암점
두부동 밥나우사거리 동김리 24번
해장국 전문점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 형 월
(062) 529-4555

남버원헬스
운남동 신사거리 수협 3층
신체계통 운동화장품
대표 김 경 희
(062) 951-9555

한우명가 둘기마
양신동 빅마트와 GS자이사이
동성동 생활상생기획재정부
대표 김 대경·천영식
(062) 571-9192

신 명 의 자
학동 학운동사무소 및 은연
광서동 광서면 기획소재화재물류
대표 전 동 일
(062) 234-8980

원당감자탕광원2호점
봉산동 광주은행 앞 면자골목
김자랑, 매밀국수, 일본전문
대표 이 인 수
(062) 676-0333

수 환 호 프
영광을 남천리 일정도 멀한 노래방
이누한공간 대형한우로 희망의 서비스
대표 이 성 표
(011) 635-5899

광주목욕관리사학원
광주동 구 송원대학
민족·스포츠·자연·환경·문화·체육
구독자 내용 및 구인 구직 연락주세요
(062) 363-0378

임 풍 과 외
봉선동 포스코앞
24시간 영어외의 지도합니다
대표 심 지 혜
(010) 7604-2913

이카데미평생교육원
유동 대성빌딩 7층
기정교통사센터 사람봉사·현신
소장 김 봉 선
(062) 412-3201

구 페 샤 브 & 프 랜 쥬
동남동 삼성교회로 1동
리스트랄
대표 이 흥 주
(062) 655-0969

계 경 목 장
신창동 송암빌딩 1층
농협회
대표 이 긍 희
(062) 956-4492

양 산 자 원
양신동 담배인삼공사·후문죽
고원비·황기·제과제빵·제과제빵
대표 위 성 태
(062) 573-1297

행남자기 남원죽 그네화점
화동 남원주시장 앞 천변로 15
담배, 흰수용품 각종상인
대표 박 병 태
(062) 224-3080

팔취네 팔죽
양동복사가기 기구점 맞은편
팔죽, 동자죽 전문점
대표 김 경 선
(062) 524-0406